

광주시청사 1층 '시민숲' 된다

도서관·안전체험장·영화관·로컬푸드 판매장 배치

광장 연못 분수대 없애고 휴게시설 설치...7월 개방

광주시가 시청사 1층을 시민 공간이 가득한 '시민숲'으로 재단장한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행정목적 위주로 활용돼 온 시청사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형 생활공간으로 재단장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아이디어 구상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리서치, 전문가 릴레이 워크숍 등을 거쳐 제시된 총 1192건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시는 시청사 1층을 시민들이 머물고 이용하는 시민공간과 함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전면 개방되며 시민숲도서관, 시민모임공간(시민숲동지), 안전체험관, 로컬푸드 판매점, 디자인숍, 장애인생산물 전시관, 문화콘텐츠 전시관, 열린광장, 홍보관, 발원숲, 카페, 키즈공유센터, 다목적홀(영화관 등)이 새롭게 배치되고 일부 재조정된다.

시민숲도서관은 1층의 대형기둥 1개를 활용, 원형모양의 도서관을 마련해 시민들의 가볍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시민모임공간은 시청 방문객에게 소규모 모임 공간을 지원하는 등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체험관도 신설된다. 시

는 청사 1층 한쪽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 및 교육장을 만들기로 했다.

로컬푸드 판매점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판매와 소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되며, 장애인생산물 전시관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생산한 우수제품을 전시·홍보하는 물론 판매와도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생산물 전시관은 운영현 광주시장의 취임식 절감액 2400만원으로 설치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다목적홀은 안전체험관 2층에 배치돼 공연, 회의, 영화상영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제공된다.

시는 또 시청사 앞 잔디광장 내 거울연못 분수대도 철거한다. 연못 분수대의 노후화로 자연누수 등이 발생함에 따라 철거 후 파고라와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꽃 등을 식재하기로 했다.

새 시민공간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7월 초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오순철 광주시 회계과장은 "청사의 재단장은 행정목적 위주의 청사를 시민이 찾고 즐기고 누리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특히 기획단계부터 어린이,청·장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민주도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하철 무료대여 자전거 점검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새봄을 맞아 지난 30일 광주 평동역을 비롯한 15개 역에서 '광주에코바이크' 회원과 함께 지하철 무료대여 자전거 세척·점검 작업을 했다.

5개 자치구 의정연구모임 '현장속으로' 발족

생활정치 혁신 사례 등 체험

5개 자치구의회의 의원들이 생활정치 현장을 방문해 공부하는 의정연구모임 '현장속으로'를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다. 5개 구의회의 연합해 구성된 의정연구모임은 지방자치 24년만에 처음이다.

'현장속으로'는 지난 30일 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육세진 강동구 사회적경제센터장을 초청해 '경쟁을 넘어 공유로-사회적 경제의 매력'을 주제로 세미나

를 갖는 등 오는 6월30일까지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한다. 전문가 초청 강의는 생활정치와 가까운 '어린이 청소년 진화도시 구축' '민주적 자치마을 공동체' '청소행정 개선'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현장속으로'는 초청 강연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은평 상상허브', '사회적 기업 두꺼비 하우스 공가 2호',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 밥집' 등 매해 선진지 현장 방문활동도 병행하는 등 생활정치 혁신 사례를 체험하기로 했다.

'현장속으로'라는 의정연구모임을 최초

로 제안한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은 "이번 5개 자치구 연합 의정연구모임 활동은 향후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의 의원들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방정치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연합의정연구모임인 '현장속으로'에는 38명의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효천 하수처리장 등 3곳 안전점검 실시

광주시가 하수처리장 3곳을 대상으로 광주환경공단과 민간전문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 제1·제2·효천 하수처리장은 총연장 4236km의 하수도 유입·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일일 최대처리용량만 73만6000㎥에 이른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동결·유해에 따른 지반의 위치 변화와 하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감전 등과 같은 안전사고 대비실태, 비상발전기·비상방류펌프 등 복구설비의 작동상태를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하수처리장별 재난사고 지휘체계와 대응시스템 작동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재난대응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범전철 광주시 생태수질과장은 "민·관 합동 안전점검으로 하수처리장 내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 후 교육과 시설개선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전국 첫 에너지절약 융복합기술 도입

광주도시철도가 전국지하철 최초로 에너지절약 융복합기술을 도입한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산업통상부 주관 '2015년 지역에너지절약 융복합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용산차량기지에 고효율 가스식 냉난방설비 등을 설치하게 되며 연간 약 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고을골프장 야간 개방

오후 6시40분~8시 입장 가능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 빛고을골프장은 1일부터 야간 개방을 한다.

광주 빛고을골프장은 광주 시내 어느곳에서나 20~30분에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골프장으로, 2010년부터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노인건강타운에 지원하고 있어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야간 라운딩은 오후 6시40분부터 8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 요금은 카트비 포함 9홀 기준 3만8000원이다. 오는 5월부터는 1시간 연장해 저녁 9시까지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빛고을골프장에서는 시민들이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골프장 이용관련 궁금한 사항은 062-672-7400 또는 빛고을골프장 홈페이지(http://www.bitgoelucc.co.kr)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

U대회 서포터즈 모집 홍보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가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서포터즈 모집을 돕는 거리홍보에 나선다.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는 지난 31일 "오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광주, 전남·북 일원에서 열리게 될 광주하계U대회 참가국별 서포터즈 모집 및 홍보를 위해 5개만 20명으로 거리홍보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집대상과 규모는 일반시민 5만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광주시 5개 자치구, U대회 조직위원회,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광주시 홈페이지나 시·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온·오프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남도 서울 은평구 '남도학숙' 건립 협약

광주·전남 상생협력 사업인 '제2 남도학숙'의 건립을 위해 광주시, 전남도, 서울 은평구가 지난 31일 오후 광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시장 등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2 남도학숙' 건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대상부지 매매가액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2 남도학숙'은 올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 이행, 하반기 소요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협력사업으로 오는 2017년까지 서울 은평구청 별관부지에 부지 5960㎡, 연면적(예상) 1만4292㎡에 광주·전남 각각 300명씩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 남도학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 466억원은 광주·전남이 233억원씩 부담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사회, 우리 아들 딸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이 없는 사회, 우리 청년들이 더욱 일할 맛 나지 않을까요?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

누구나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 제2의 인생 시작!

능력 있는 커리어맘, 든든한 엄마가 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가는 노사정 대타협!

내 아들과 딸의 취업이 열립니다. 노사정 대타협!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